

기억을 매개하는 감각물

재료: 자기점토, 손성형, 압축성형, 청화안료, 망간유, 산화 1260℃소성, 아크릴판, 시멘트.

크기: 90x90x210

제작년도: 2015

기억을 매개하는 감각물의 작품은 여러 unit 들이 모여 한 작품으로 보여진다, 절규하는 손, 장화들, 바다 속에서의 잠수마스크, 탑 쌓는 건물의 이미지형상, 자화상의 얼굴, 기계형태 등 다양한 형상들이 서로를 보완하듯 모뉴먼트 형태로 이루어져있다.

청색으로 이루어진 형태들은 암시적으로 전통 문양과 인체해부도, 반핵운동의 로고, 등등이 남겨지면서, 돌연 진한 청색의 물감이 쓸고 나간 붓의 자취, 질료의 얼룩을 보여준다.

바닥부분에는 망간유를 이용하여 화려한 청색과 거침없는 붓질에 극적인 해방감을 가지화시킨다. 흙으로부터 문명을 상징하는 하나의 구성물을 만들고 그 구성물을 하나하나 해체하면서 그것이 나온 것으로 환원시키는 순환의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부표와 같이 떠돌던 인간의 감각을 제자리로 돌려보내며, 문명이라는 이름아래 인간 실존의 근원적 고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에서 보여 지는 장화들은 본인의 작품세계에서 오랫동안 신발을 주제로 이용된 테마로, 한 개인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남성이며, 여성을 대변하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이며 동시에 현대문명을 상징하는 것이다. 장화작품은 석고를 이용한 압축성형으로 같은 형태로들로 마치 컬렉션을 연상하며, 마치 시간여행의 기억을 상기시킨다.

또 다른 형태들은 주로 손성형 으로 제작되었다. 일반 용기에 사용하는 흙 과 조형작업에 쓰이는 흙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번 작품에 사용한 흙은 가소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조형 흙에 용기토와 샤모트를 다소 더 첨가 하였고, 재벌소성후에 소지색이 다소 어둡기 때문에 작품성형후에 분청사기 기법인 화장토로 분장하였다. 작품제작은 우리전통용기 성형기법으로 타렴, 도판 등 다양한 기법으로 제작하였다. 900℃초벌이후 청화안료채색과 투명백유와 망간유로 시유이후1260℃로 산화 소성하였다.

장화의 연결부분은 원형의 (아크릴판, 시멘트 판, 도판(陶版))판으로 형태를 유지시킨다.

또한 작품설치 방법은 각각의 unit이 크게 4개의 형태로 탑쌓는 형상으로 구성되어진다.

도자에서 크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겨난 기법이 흙 안을 비우는 것이다. 흙덩어리 상태로 소성하게 되면 흙 밀도가 높은 온도에 견디지 못한다. 여기에는 다양한 기법들이 동원 되는데 늘 다양한 작업의 과정들이 흥분시킨다.